

<2022년 6월 8일 수요말씀>

##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라

[시대 성경]

자기가 행한 일을 깨달으려고 해야만 깨달아진다.

하나님의 뜻이 있어 네게 은밀히 행한 일은 네가 행하고도 모르나니,  
그러므로 자기가 왜 이같이 행하였나 생각만 하지 말고,  
깨달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며 간구하여라.

그때 하나님은, 왜 네가 그같이 행했는지 깨닫게 해 주시리라.

[시편 49편 20절]

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

[시편 107편 43절]

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

[시편 119편 34절]

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

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

[다니엘 12장 10절]

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 
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 
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

- 이번 주에는 <지난날 자기가 행한 일들>을 두고  
‘왜 그렇게 행했는지’ 깨달으려고 해야,

〈지금 하나님과 성령님〉이

‘자기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’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.

- 저마다 〈자기가 행한 것 중〉에  
〈깨달아야 될 것〉이 너무도 많습니다.
- 〈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〉,
  - 〈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신 뜻〉을  
〈본인〉이 모르고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,
  - 〈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행해 주신 일〉을 깨닫지 못하여  
〈현실에 함께해 주시는 것〉을 놓치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.
-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 
“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지지,  
그냥은 깨달아지지 않는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
- 〈일〉도 ‘하고자 해야’ 해지지, ‘그냥’은 안 해집니다.
- 〈생각〉도 ‘깨달으려고 해야’ 깨달아지지,  
‘그냥’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.
- 〈생각〉도 안 하고, 〈의식〉도 안 하는데  
‘저절로 깨달아지는 것’은 하나도 없습니다.

- <어떤 것>은 깨달으려고 하면 바로 깨달아지고,  
 <어떤 것>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  
 ‘말씀’도 깊이 듣고, ‘기도’도 깊이 해야 깨달아집니다.
- <자기 생각>과 <의지>로 깨닫지 말고,  
 <마음을 비우고 온전하게 깨달으려고 해야> 제대로 깨달아집니다.
- <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>도  
 ‘신경 쓰고, 깨달으려고 해야’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.
- <자기가 왜 섭리사에 오게 되었는지>도 제대로 깨달으면,  
 <섭리사>에서 ‘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’ 살게 됩니다.
- <어떤 사람>은 ‘나는 섭리사에 와서 하는 일도 없는데,  
 잘하고 있는 건가?’ 생각하기도 하고,  
 이미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 
 <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자>도 있습니다.  
 <섭리사>에서 ‘하나님의 말씀’을 듣고,  
 <하나님>을 믿고 사랑하며 ‘신앙 생활’을 하고 있으면,  
 ‘잘하고 있는 것’입니다.
- 깨닫고 보면,  
 누구든지 <섭리사 전체>를 위해 ‘꼭 필요한 귀한 자’입니다.  
 <그 면>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‘하나님의 사역자들’입니다.

〈하나님과 성령님 앞〉에 ‘개성의 왕 같은 자들’입니다.

- 〈하나님이 자기가 꼭 필요해서 섭리사에 택해 오셨다는 것〉도 ‘깨달으려고 해야’ 깨달아집니다.

- 모두 〈자기 개성〉을 나타내면서 〈자기 재능과 특성〉을 쓰면서 뛰고 달려야 됩니다.

- 선생님은 〈깨달으라는 말씀〉을 듣고,

몇 년 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 온  
〈작은 분재술〉이 생각났습니다.

처음에 나무를 옮겨 왔을 때,  
〈잎〉이 무성하고 〈수형〉이 좋았지만,  
〈뿌리〉가 약해서 몇 년 동안 간신히 살렸습니다.

- 〈이번 주 말씀〉을 듣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,  
〈그 분재술〉을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면서  
‘이 분재는 성령님이 왜 사 오게 하셨지?’ 하고 생각했습니다.

성령님께 물었으나,

성령님은 “네가 자세히 보고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진다.  
왜 사 왔는지 깨달아라.” 하셨습니다.

- 깨달으려고

3일 동안 <무성한 잎과 가지>를 모두 쳐 주고 깨끗이 하니,

<가지 속에 가려 있던 나무의 속>과  
<덩치>와 <생김새>가 다 드러났습니다.

다 해 놓고 보니,

보이지 않았던 <두 가지 작품 형상>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.

<첫 번째 형상>은

‘피겨 스케이팅 이너 바우어 동작을 하고 있는 형상’ 과  
‘발레 백 캄블레 자세를 하고 있는 형상’ 이었고,

<두 번째 형상>은

‘고난도 요가 동작인 쟁기 자세를 하고 있는 형상’ 이었습니다.

- 깨달으려고

<생각>도 하고, <거기에 해당되는 일>도 열심히 하니,

분재를 사 온 지 4년 만에

‘이런 <작품 형상>이 있어서 성령님이 사 오게 하셨구나.’ 하고  
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.

- <이 분재>는

<월명동 분재술 중>에 ‘세 번째로 멋진 작품술’ 이었는데,

<무성한 잎과 가지들>을 다 자르고

<나무의 속>과 <덩치>를 드러내니,

‘최고의 작품’ 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.

- 이와 같이 <섭리사>도

<일만 무성한 신앙들>을 다 잘라내고,

<근본 문제>를 모두 해결하면,

<하나님의 말씀>과

<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신 것들>과

<하나님의 역사의 뜻과 본질>이 드러나서

세상에서 <섭리사>가 ‘최고’로 인정받는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.

- 나무를 볼까요?

<전에 작품성 1위였던 분재술>은 <날개 분재술>이었는데,

‘이 나무를 따라갈 나무’가 없었습니다.

- <3위에서 1위로 오른 분재술>을 볼까요?

이름은 <깨닫다술>입니다.

<나무>를 정리해주고 온전하게 만드니,

‘그 덩치’와 ‘형상’이 드러났습니다.

<50전 크기의 암반 술>입니다.

<나무의 외피>가 좋고, <덩치>가 크고,

<형상>이 ‘작품성’이 있어서 ‘대(大)결작’입니다.

처음에 들어왔을 때,

〈성령님〉이 ‘나무’를 반대로 돌려서 다시 심게 하셨는데,  
그것도 ‘수형을 찾게 하기 위함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.

- 이와 같이 저마다 〈자기모순〉을 ‘가지치기’하고,  
〈속에 있는 자기 재능과 사명〉을 드러내면,

〈자기 신앙의 작품〉을 찾게 되어  
하나님께 〈개성의 왕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

- 〈자기〉를 깨달아야 됩니다.

〈자기〉를 깨닫고 고치고 만들면,  
〈이미 갖추고 있는 것〉이 드러나서  
개성대로 ‘자기 작품성’을 깨닫게 됩니다.

- 성령님은 〈깨달다술〉을 보이시며, 뜨끔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.

〈지난날의 것〉을 깨달으려고  
〈생각〉도 하고, 〈그에 해당되는 일〉도 해야 깨달아집니다.

〈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대로 행하니〉,

〈4년이 될 때〉까지

‘성령님이 왜 이 술을 사오게 하셨는지’ 깨닫지 못하고,  
‘특별한 형상도 없는데 왜 사오게 하셨는지?’ 생각만 했습니다.

- 사람들은 흔히

‘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보통이다.’ 라고 생각합니다.

저마다 <자기모순>을 ‘가지치기’ 해서  
<속에 있는 자기 재능과 사명>을 드러내면,  
모두 <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대(大)결작품>임을 깨닫게 됩니다.

- <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>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이 지난날 행하신 일>과  
<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>을 깨달아야,  
‘하나님과 일체 되어’ 같이 행하게 됩니다.

- 4년 전에 <소리가 아주 좋은 새>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,

<아주 귀한 희귀종 새>인데,  
‘대전 지역 산’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 <그 새가 그려진 그림>을 보고,  
<하나님의 자연성전>에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

<하나님의 능력>과 <기도의 응답>에 감격했습니다.

- <그 후 4년이 지나고, 깨달으라고 하신 이번 주간>에  
<월명동 근처 산>에서  
‘그 희귀종 새가 노래하는 것’을 찍어 와서 보게 됐습니다.

이와 같이

<불가능해 보이는 것>이라도 <기도>하면 들어 주니,

<하나님과 성령님이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>을 깨닫고  
‘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것’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.

- <새 소리>를 들어 봐요.

<새>가 ‘기존의 서식지’를 떠나서  
‘월명동 근처’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.

하나님은 <기도한 것>은 ‘합당하면 다 들어 주신다는 것’을  
확실하게 깨닫고 ‘힘’을 받았습니다.

- <하나님과 성령님>이 ‘늘’ 옆에 계셔도,  
‘깨달아야’ 말씀해 주십니다.

<앞의 것>을 ‘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’을 깨닫고,  
<그다음 것>도 ‘그와 같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’을 깨달으면,

<하나님>이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시며,  
‘더 분명하게’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전도서 3장 15절을 보면

“<이제 있는 것>이 ‘옛적’에 있었고,  
<장래에 있을 것>도 ‘옛적’에 있었다.” 라고 말했습니다.

- <경험한 일>을 ‘더 차원 높여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’이십니다.

<앞의 것>을 행하고 깨닫게 하시고,

〈그다음 것〉도 ‘그와 같이’ 차원 높여 행하십니다.

- 〈자기가 하는 일〉을 ‘제대로 분별’ 하려면,

〈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에게 해 주신 것〉을 깨닫고,  
〈현실에 자기에게 해 주시는 것〉을 깨달으면 됩니다.

- 〈사명을 주신 것〉도,

〈취직하게 해 주신 것〉도,

〈집을 구하게 해 주신 것〉도,

〈하나님과 성령님〉이 ‘그 터전에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’입니다.

- 그때마다 〈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행해 주신다는 것〉을  
‘깨닫고자 하여’ 깨달으면,

〈지난날〉과 같이 〈현재〉도, 〈미래〉도

〈사랑하여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심〉을 깨닫고,

〈보람 있는 신앙 생활〉을 하게 됩니다.

- 〈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〉을 깨닫고 살면,  
〈하나님도 성령님〉도 ‘속’이 시원해하십니다.

- 〈깨달을 것〉도

〈관심〉이 없으면 ‘10년, 20년 후’에 깨닫게 됩니다.

〈깨닫고자 하여 깨달으면〉,

‘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나듯’ 순간 생각납니다.

- <생각>을 가만히 두면 ‘무(無)’로 흘러갑니다.
- <생각을 놀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>을 기억하면서,  
그때마다 ‘왜 그렇게 행하는지’  
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보며 행하기를 축원합니다.